

VIEW/대한건설정책연구원 노재화 원장

기사입력 2012-04-12 06:00:07 |

폰트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공정한 원하도급간 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적정공사비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 등은 일반건설업체나 전문건설업체 모두가 제 가격을 받지 못한 채 공사를 하도록 강요하는 제도여서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노 원장은 “원·하도급간 업역간 갈등은 있지만, 협력할 부분도 많다”며 “공사비 하락, 저가공사 등은 종합, 전문업체 모두의 문제”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과 함께 최근 공생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실적공사비, 표준품셈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적정공사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는 시급히 고쳐야 하며, 특히 품셈을 개정하고 실적공사비 산정기준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10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정공사비가 보장되면 원하도급 관계의 문제도 크게 나아질 수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현행 적격심사낙찰제도 역시 낙찰하한을 상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원하도급 관계는 상호이익의 관점에서 동반자 관계로 봐야 합니다. 전문업체를 단순히 생산요소나 갑·을 관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로 이해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정거래를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반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자는 이야기다. 이 같은 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는 일반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원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만 제대로 활용되더라도 원·하도급사간 불공정거래를 크게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업체의 경쟁력확보에 대해 노 원장은 시공기술 향상과 미래 성장동력 등 경쟁력 강화에 더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앞으로 현장여건이 더욱 복잡해지고 인력난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문업체들은 시공영역과 업체별 특성에 따라 노무중심, 장비중심, 재료중심 등의 기술개발을 통해 시공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유인책과 지원책도 병행되면 좋겠지요”

노 원장은 건설산업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SOC 예산이 보편적 복지에 밀려 축소지향적으로 움직이고, 부동산 시장 역시 앞으로도 크게 활기를 띠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건설사들이 해외시장진출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건설산업의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 미래의 먹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노 원장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테마로 녹색건설, 물산업을 들었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도시 모두 집중호우에 매우 취약합니다. 대구경 하수관거 설치는 물론 지하하천 건설도 검토할 시기입니다. 태국의 경우 터널을 뚫어 평소에는 도로로 활용하고, 집중호우 때에는 불어난 물을 저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천 등에 이러한 시설을 할 경우 기상이변에 대응하면서 교통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문업체들도 업종별로 녹색건설이나 물산업, 신재생에너지, 건설IT 등의 요소기술을 선점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장은 “이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해외진출지원센터 등의 지원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올해로 설립 6년째를 맞는다. 지난 2006년 설립 이후 매년 20여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전문업계의 현안에 대한 해법과 장기적 관점의 경영,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올해는 전문건설업 시장확대, 하도급거래 정상화, 건설시장 효율성 제고, 초고층법제도 지원정책연구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전직원 워크숍을 통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5년이 정착기라면 앞으로 5년은 도약기에 해당합니다. 중장기 발전전략에는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등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로드맵과 함께 연구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산업과 전문건설업 관련분야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로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건설기술 향상을 위해 지난 2006년 9월 설립된 연기기관이다. 박덕홍 전문건설협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